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연시회 열어

농진청, 오늘 충남 논산서... 수입 건조 대체·풀사료 자급률 향상 기여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21일, 충청남도 논산시 풀사료 생산 농가에서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지역 시군농업기술센터, 풀사료 생산 경영체, 축산농가 등 관계자를 비롯해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연암대학교 재학생 등 청년 후계농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연시회에서는 알팔파 열풍건초 제조 기술 교육, 국내산 알팔파 열풍건초와 수입 건조의 사료기저 분석 비교, 알팔파 수확 및 연중 생산에 적합

한 안정재배 기술 교육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열풍건초의 품질 향상, 생산 비용 절감 보급 확대 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도 갖는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건조(수분 함량 20% 미만 풀사료) 생산이 어려운 국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개발해 현장 보급에 힘쓰고 있다.

영양분이 많은 잎의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알팔파 열풍건초 생산 방법도 그 가운데 하나다.

국내에서 재배하고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으로 말린 알팔파 건초의 사료 가치는 조단백질이 23.57%, 총가소화 양분이 64.35% 내외다. 최고 등급 외 국산 알팔파 건조(조단백질 17.38%, 총가소화양분 64.14% 내외)와 비교해도 품질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

열풍건초를 생산하는 박덕화 대표(예담농조합법인)는 "알팔파 열풍건초 품질은 수입 건조와 비슷했고, 가격은 더 저렴해 축산농가와 풀사료 생산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2023년 '열

풍건초 생산 시스템' 능가 실증 연구를 통해 열풍 건조 효율과 균일도, 건조 품질 등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간당 건조 생산량을 늘린 '공장형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추가했다. 올해는 신기술 시범사업과 연계해 경북, 전남, 전북, 충남 4개도에 5기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차사료과 이상훈 과장은 "국내에서의 알팔파 생산 못지않게 품질 좋은 건조를 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라며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을 활용한 알팔파 건조 생산 기반이 더 많은 지자체와 농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17일 남원시 운봉읍 신덕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전개공, 1사1촌 농촌 일손돕기

2007년부터 17년째 농촌발전 지원

전북개발공사(사장 최정호)는 지난 17일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남원시 운봉읍 신덕마을을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일손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행되었으며, 임직원 30여 명이 파넬 김매기, 상추 작업작업 및 마을 환경 정비 활동 등 봉사활동에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전북개발공사는 2007년부터

17년째 도내 소외지역과 자매결연하여 매년 봄·가을 영농기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마을 복지 물품 지원 등을 통해 농촌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일손 부족으로 애태우던 마을 주민은 "농촌에 일손이 매우 부족하였는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와주시어 한시름 덜게 됐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전북개발공사 최정호 사장은 "앞으로도 자매결연 마을에 대한 교류 확대와 다양한 지원을 통해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 천리길 '뜰봉샘 생태길' 걷기 행사에 동참해 참여자들에게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농협 장수군지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활동 전개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지부장 김준오) 임직원들은 지난 18일 전북 천리길 '뜰봉샘 생태길' 걷기 행사에 동참해 참여자들에게 '장수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장수군지부가 기획한 이번 걷기 행사는 금강사당 물체합관에서 시작해 금강발전지 뜰봉샘과 자작나무 군락지를 지나는 왕복 4km 거리를 걷는 코스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다.

이날 군지부 임직원들은 지역주민들과 인근 타 시·군 참가자들과 뜰봉샘 생태길 걷기 코스를 함께 걸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물을 전달했다.

김준오 지부장은 "연말정산 대상 직장인에게 희소식은 10만원을 장수군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 덤으로 장수군 농·축산물을 담례품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장수군과 기부자 모두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며 장수군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K푸드 수출 확대·저탄소 식생활 확산 위한 MOU체결

하림-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축산식품 산업 발전·지속 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 맞춘

종합식품회사 (주)하림은 20일, 하림 본사에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K-푸드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주)하림 정호석 대표이사과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김춘진 사장을 비롯한 양기관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K-푸드 수출 확대와 상호교류를 통해 ESG 경영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환경 조성



종합식품회사 (주)하림은 20일, 하림 본사에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K-푸드 수출 확대와 저탄소 식생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진해 왔다. 이를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폐목재 재활용 사업, 바이오가스 사업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실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최첨단 도계가공시스템과 닭고기를 주원료로 만들어지는 건강하고 차별화된 가공 제품들을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에도 공급하고 있다. 하림과 계열사에서 생산한 삼계탕, 부부육 등 닭고기 가공 제품들은 미

국, 일본, 독일, 베트남 등 세계 10여 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정호석 사장은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에 동참해 저탄소 식생활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환경 경영의 가치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하림삼계탕을 비롯한 K-푸드 세계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항생제 사육·생산 등 유망형 동물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하림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닭고기 시장을 이끌어가는 선도 기업으로 22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농림/냉장육부문)를 차지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20.3%를 차지하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전 세계에 우리 K-푸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하림과 협력하게 돼 기쁘다"라며, "앞으로 저탄소 식생활 확산에도 적극 동참해 대한민국과 K-푸드의 브랜드 가치를 함께 드높이자"라고 말했다.

이식=이재춘 기자

전북경기청, 2024년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태용, 이하 전북중기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과 2024년 전북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를 7월 16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직업계고 출신 지역 기술인재의 지역안착을 돕고자 전북중기청과 전북도교육청이 뜻을 모아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19개 일자리 유관기관이 참여해 인력매칭을 지원한다.

주요 유관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JVADA,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주대, 원광대, 우석대, 군산대 등이다.

작년 9월 19일 전북테크비즈에서 개

최한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는 도내에선 처음으로 직업계고 학생 구직자와 우수 중소기업과 사전매칭을 통해 행사 당일 구인기업·구직자간 현장 면접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의 호평을 얻었다.

올해에는 도내 30개 직업계고 출신 기술인재와 우수 중소기업 60개사를 대상으로 인력매칭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박람회 위탁용역업체'를 공개 모집 후 선정, 채용관, 컨설팅관, 기타 부대행사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중기청 안태용 청장은 "이번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는 우리지역 중소기업에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여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도내 직업계고 출신의 전문인력과의 일자리 매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북경진원, 사회적경제 플리마켓 '씨앗마켓' 개최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지난 19일 이마트 전주점에서 사회적경제기업 매형사인 '씨앗마켓(Social Economy ESG Develop)'을 개최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부터 체험, 먹거리 등 총 40여개 부스가 운영되었다. 당일 2만인 이상 구매자 선착순 900명에게 경품 이벤트

를 실시하며 선착순 무료체험의 기회도 제공했다.

그간 경진원은 다년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플리마켓을 지원해 왔다. 올해 '씨앗마켓'은 도내 14개 시·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협업과 이마트 전주점의 장소 협조로 성사되었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이번 행사는

지역내 대형 마트와 사회적경제의 상생발전에 큰 의미가 있는 행사"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의 판로개척에 적극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ijmaeil.com에서